

古文獻의 保存處理에 관한 事例研究*

-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에서 발견된 『月印釋譜』(권25)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Ancient Documents

- Focusing on the 『Wolinsukbo』(Vol.25) from the Four Devas of Borimsa, Buddhist Temple at Jangheung County -

노 기준(Ki-Chun Roh)**

◁ 목 차 ▷

- | | |
|-----------------|--------------------------|
| 1. 緒論 | 3. 『月印釋譜』(卷 25)의 保存處理 過程 |
| 2. 長興 寶林寺와 四天王像 | 3.1 保存處理 以前 狀態 |
| 2.1 寶林寺의 연혁 | 3.2 修補方針 |
| 2.2 四天王像의 조성 | 3.3 保存處理 過程 |
| 2.3 四天王像 腹藏佛書 | 4. 結論 및 提言 |
|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장흥 보림사는 신라 경덕왕 18년(759)에 元表대사에 의해 화엄종찰로 개창되었으나 體澄이 현안왕 2년(858)에 가지산사로 이석함으로서 선종사찰의 중심 도량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대단히 번창하였던 사찰이다. 이 연구는 1995년 장흥 보림사의 사천왕상에에서 발굴된 복장불서 가운데 보물 제745-9호로 지정된 『月印釋譜』(권25)를 대상으로 서지학의 관점에서 지류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 과정을 다룬 연구 논문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존처리 전 형태적 특징을 보면, 책의 크기는 가로 22cm, 세로 32.3cm, 책의 두께는 2.8cm, 五針眼訂法의 線裝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 142장(3~144장)이 발견되었다. 책의 상태는 사천왕상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책의 일부가 규칙적으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의 장은 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심한 상태며, 중앙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존처리 과정은 1) 제1차 세척과정, 2) 판본 보완 및 보수 과정, 3) 제2차 세척 및 보존처리 과정, 4) 재단 및 제책과정, 서투 및 표갑의 제작 등으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보존처리 후 책의 외형은 가로 22.5cm, 세로 32.7cm, 두께 3.2cm로 가로 0.5cm, 세로 0.4cm, 두께 0.4cm 등의 외형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張數는 총 151장으로 표지를 포함하여 9장의 매수가 증가하였다.

요어 : 寶林寺, 四天王像, 腹藏佛書, 月印釋譜, 保存處理, 元表, 體澄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제 1세부과제 KRF-2002-005-B20012)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학술진흥재단 연구교수
논문접수일자 : 7월 22일
게재확정일자 : 8월 30일

<ABSTRACT>

Borimsa was first built by Wonpyo, the great Buddhist priest of Whaum branch, in the year of 759 A.D. And Later the priest Chejing converted to Zen Buddhism in the year of 858 A.D., Borimsa got the central status of the Zen Buddhism, and was so prospered during the Chosun period. This research is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Buddhist literatures and the 『Wolinsukbo』 Vol.25, discovered in 1995 from the Four Devas of Borimsa, Buddhist Temple at Jangheung County, in the viewpoint of the bibliography.

『Wolinsukbo』 Vol.25 is consist of 142 pages and the size is of 22cm width, 32.3cm of length, and 2.8cm of depth. And also have the five-pinned eye revisor. The pre-conservation condition of this book was partly spotted by the permeated rain, and the cover pages being deeply spoiled.

The conservation treatment was done in the sequences of 1) 1st linsing, 2) repairing and correcting, 3) 2nd linsing and conservation, 4) cutting and binding.

The post-conservation condition of 『Wolinsukbo』 Vol.25 is of, 9 pages including covers are added, total 151 pages, and the size being 22.5 cm width, 32.7cm of length, and 3.2cm of depth.

Key words : Borimsa, the Four Devas, Wolinsukbo, a conservation treatment, Wonpyo, Chejing.

1. 緒論

紙類文化財 가운데 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술되어 기층사회의 역사적 실상을 밝히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고문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의 토양에서 자란 양질의 닥(楮)을 원료로 하여 만든 훌륭한 종지와 뛰어난 인쇄술, 그리고 冊의 裝幀 등등 기술과 정신의 종합적 산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습기와 충해 등에 훼손되어 최근에 保存, 補修處理 과정을 거친 고문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紙類文化財의 보수, 보존처리 과정은 오랜 기간동안의 경험적 필요성이 중시되는 전통적인 방법이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¹⁾, 과거 문화재보존의 초기단계에서는 한사람의 전문가가 지류, 목재, 금속 등 여러 유형의 문화재들을 함께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과정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체계화됨에 따라 각 유형의 문화재 보존처리 역시 좀더 심도있게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는 곧 문헌정보학의 분야에서 살펴볼 때 고문헌의 내용과 형태적 특징 등 책에 관해 폭넓은 지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1) 일본은 1910년대에 이미 法隆寺 벽화의 조사연구와 보존수복을 위해 自然科學的 方法을 도입하였다고 하며, 특히 1952년 처음으로 ‘保存科學(Conservation sci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사와다 마사아키(澤田正昭) 著; 金聖範·鄭光龍 共譯. 문화재보존과학개설. 서울: 서경문화사, 2000. pp.23~30)

서지학분야는 어떤 타학문 분야들 보다 책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이 축적된 학문분야이며, 서지학 전공자들은 책에 관해 가장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존처리의 전문화, 세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류문화계의 보수 및 보존처리 분야는 서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분야를 바탕으로 하여 서지학의 외연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의 연구자는 전남대학교 송일기 교수와 함께 1955년부터 장흥 보림사의 복장불서 발굴조사를 필두로 영광 불갑사, 해남 대흥사, 순천 송광사, 승주 선암사, 오대산 월정사, 해남 녹우당 등 사찰과 종가에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고문헌의 발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연이 깊어서인지 보림사 복장불서의 보수 및 보존처리를 맡고 있는 ○○○의 紙類文化保存研究所 보존팀 일원으로 참여하여 보림사에서 발굴된 전적과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존연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한 보림사의 복장불서 가운데 1997년 6월 12일 국가 유형문화재 보물 제745-9호로 지정된 『月印釋譜』(권 25)를 대상으로 서지학의 관점에서 보존처리 전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보존처리과정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단, 이 논문은 보존처리 기술에 일천한 서지학 전공자로서 보존처리 과정의 실증적인 내용을 주로 서술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며, 보존처리의 여러 과정을 정량화 하는 등의 과학적인 보존처리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일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2. 長興 寶林寺와 四天王像

2.1 寶林寺의 연혁

보림사는 신라 경덕왕 18년(759)에 元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던 사찰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보림사의 창건 및 중창에 관해 기록한 사지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은 조선시대 世祖 연간에 작성된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蹟>²⁾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

2) 지은이는 기록되지 않았고, ‘皇命天順年中記’라는 연기가 있어 天順年間인 1457~1464년 사이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적기는 1967년 이기백교수가 미국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1954.10.26.

부는 元表 大德이 西域과 中國에 이어 우리나라(東方)에 창건한 ‘迦智山 寶林寺’의 창건 연기설화와 함께 東西法堂, 天子閣, 佛子閣, 龍子閣, 雲子閣, 左右寮舍, 행랑, 결채, 누각, 문집(門堂) 등의 가람배치가 기술되어 있고, 후반부는 원표 대덕 이후 迦智山門의 法系를 이은 道義禪師 → 廉居 → 體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수록한 普照禪師彰聖塔碑文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원표의 뒤를 이어 迦智山門의 道義禪師가 선덕왕 5년(874)에 당나라에 들어가 西堂 智藏에게서 心印을 받고,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는 귀국 후 교종 중심의 신라의 불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킴으로서 魔語라든가 虛誕하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강원도 설악산 陳田寺로 떠나 그 곳에서 40여년을 은거 수행하였다. 그곳에서 심인을 廉居에게 전해 주었으며, 엄거는 다시 體澄에게 法系를 전해주었다. 체정은 현안왕 2년(858)에 왕이 道俗使인 영암군 僧正 連訓法師 등을 보내어 가지산사에 머물기를 양청하므로 비로소 가지산사로 이석하였는데, 보림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선종 사찰의 중심 도량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말 이후 고려에 들어와서 보림사는 이렇다할 만한 발전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점차 寺運이 쇠락되어 폐사의 처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여말에 이르러 공민왕의 왕사인 태고 보우가 보림사의 주지로 나아감에 따라 이때부터 자못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시대에 와서 보림사는 점차 그 활력을 재생한 듯,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세조 년간에 작성된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蹟記>와 正祖 4년(1780)에 天王像과 金剛像의 重修 내용을 목판에 음각한 <寶林寺天王金剛重新功德記>, 현재 대흥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寶林寺重創記> 등이 전래되고 있어, 조선시대에 대규모의 중창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덕기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조선초기인 성종 9년(1478)에는 쌍삼층석탑이 기울어진 것을 보고 化住 元湜·義珠·正安 등의 발원으로 이를 바로 세웠으며, 중종 10년(1515)에는 사천왕상을 조성하였고, 중종 30년(1535)에는 1478년 바로 세운 쌍삼층석탑을 義根이 중수하였다. 또한 현종 9년(1668)과 숙종 10년(1684), 정조 1년(1777)에는 앞서 보수한 바 있는 쌍삼층석탑과 1515년에 조성된 사천왕상을 계속적으로 중수하였고, 18세기 중엽에는 대적광전을 대대적으로 중수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재 해남

1911/3445)에서 사진 촬영하여 가져온 것으로, 황수영교수가 『考古美術』(제8권 제4호, 통권 81호)에 주기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사본 1권으로 모두 9장이며, 반염은 8행16자 해서체로 정서되어 있다. 표제는 ‘寶林寺寺蹟’이며, 내제는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蹟’이다.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寶林寺重創記>에는 임난이후 보림사에서 벌어진 대규모 중창불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658년부터 1714년까지 法源殿을 비롯한 수많은 건물들이 신축, 중창,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창기에는 이밖에도 각종 불사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 당시 보림사의 사세를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보림사 일주문 내면에 ‘禪宗大伽藍’이라는 大字 橫額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 글씨 끝 부분에 縱書로 『順治十四年八月 日/禮曹/守禦廳/兩司帖額』이란 小字의 기록과 行을 달리하여 『雍正四年三月日施行』이라는 年記가 기록되어 있다. 상기의 기록은 효종 8년(1657)에 국가수호 사찰의 제약을 내려 주었던 사실과 이를 영조 2년(1726)부터 시행케하여 보호하라는 내용으로, 당시 보림사의 寺勢가 어떠한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림사는 신라 경덕왕 18년(759)에 元表대사에 의해 처음에는 화엄종찰로 개창하였으나 體澄이 현안왕 2년(858)에 가지산사로 이석함으로서 선종사찰의 중심 도량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말 이후 보림사는 寺運이 쇠락되어 폐사의 처지가 되었다가 여말에 이르러 새로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대규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단히 번창하였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2.2 四天王像의 조성

四天王 신앙은 사악한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을 보호하고, 침략자의 위협에 대항하며, 인간 세상의 고통스러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져 왔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배자들의 호국이라는 통치이념과 일치되었고, 종교적으로는 호법의 개념에서 사찰의 수호신으로, 민간에서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僻邪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끊이지 않고 그 신앙의 형태를 선호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성된 보림사의 사천왕문은 앞에 있는 ‘外護門’이란 현판이 있는 일주문과 뒤에 있는 남북의 삼층 석탑과 석등, 그리고 대적광전과 서로 축을 이루어 자리하고 있다. 정문 御間은 사찰의 통문이며 좌우 협문 앞에 목책을 세우고 그 안에 사천왕상 4구⁴⁾와 인왕상 2구를 각각 안치하고 있다. 현재는 정면3칸, 측면3칸의 풍관이 있는 맞배집으로 전면의 중앙에 ‘四天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사천왕문 문간을 들어서면 향우측 입구 쪽에 인왕상이 1구 자리잡고 있고, 그 뒤로 양

3) 宋日基,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第6號, 1997.6. pp.89~92.

4) 동방의 持國天王, 서방의 廣目天王, 남방의 增長天王, 북방의 多聞天王.

손에 칼을 잡고 있는 東方持國天王과 비파를 들고 있는 南方增長天王이 나란히 서있으며, 향좌측 입구 쪽에 역시 인왕상 1구가 서 있고 그 뒤로 오른손에 조그마한 단검을, 왼손에 칼을 잡고 있는 西方廣目天王과 오른손에 幢을 세워 잡고 왼손에 탑을 들고 있는 北方多聞天王이 나란히 서있는데, 사천왕상의 크기는 대략 높이 3.7m, 너비 2.9m이다.

사천왕상의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1780년 天王像과 金剛像의 중수 내용을 가로 170cm, 세로 30cm 크기의 木板에 음각한 <寶林寺天王金剛重新功德記>⁵⁾로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청에 보관 중이다. 목판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판독할 수 없는 글자들이 많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내용 가운데 ‘皇明正德乙亥有山人戒之始爲立像’이라 하여 이상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가를 밝히고 있다. 즉 正德은 明의 武宗(1506~1521)의 연호이며, 따라서 正德乙亥는 조선 중종 10년(1515)에 사천왕상을 조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사천왕상이 조성된 이후 중수한 사실을 보면, 공덕기문에는 ‘康熙戊申’ 즉 顯宗 9년(1668)년과 ‘乾隆丁酉’ 正祖 1년(1777)년에 사천왕상과 인왕상을 중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해남 대둔사(대흥사) 경내의 성보박물관(서산대사유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보림사중창기>에는 康熙 5년(1666)에 천왕상과 천왕문을 중수 하였다고 하여 2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림사중창기>의 말미에는 1954년(檀紀四二八七年甲午三月二十三日) 四天王 解脫門 道義國師 梅花夫人 影閣 등을 수리하고 기와를 교체하였다는 기록이 마지막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954년 이후 사천왕상과 관련된 사실들을 살펴보면, 1971년 10월 24일 실시된 사천왕상의 보수 공사 작업 중 몸통부분에서 150여 책에 이르는 많은 북장불서가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1995년 장흥군의 의뢰로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보림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천왕상의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때에도 사천왕상의 팔과 다리부분에서 月印釋譜(권25) 등 203여 책이 재차 발견되었다. 그리고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은 국내에 현존하는 목조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되어 1997년 6월 12일 보물 제1254호로 지정되었으며,⁶⁾ 보물로 지정된 사천왕상은 문화재청

5) 이 공덕기는 불사에 참여하였던 47명의 緣化秩 앞에 ‘能仁殿佛像改金事不爲別杼歲乾隆四十五庚子流月日洞然智□’라고 하여 記文이 1780년(正祖 4)에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6)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희태·최인선·양기수 역주; 고경 감수. 『역주 보림사 중창기』. 장흥문화원, 2001.

宋日基.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第6號, 1997,6. pp.87~125.

崔仁善. 『迦智山 寶林寺』. 順天大學校博物館·迦智山 寶林寺, 1995.

최인선·김희태·양기수. 『보림사』. 학연문화사, 2002.

의 지원으로 2001년 5월 해체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 무릎 아래에 복장되었던 전적 145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보림사의 사천왕상은 호법·호국·호악의 존재로서 中宗 10년(1515)에 조성되었고, 이후 현종 9년(1668)과 正祖 1년(1777) 2차에 걸쳐 중수되었으며, 1954년, 1971년, 1995년, 2001년 4차에 걸쳐 보수공사 및 조사가 실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3 四天王像 腹藏佛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불서는 모두 3차에 걸쳐 발견, 조사되었다. 1차 발견은 1971년 10월 24일 실시된 사천왕상의 보수공사 작업 도중에 발견되었으며, 이때 사천왕상의 몸통에서 150여종의 불서가 발견되었고, 그 가운데 38종의 고서목록이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⁷⁾ 2차 발견은 1995년 순천대학교 박물관탐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때 사천왕상 4구 모두 등뒤에 있는 복장구멍(北方多聞天王 가로 38cm, 세로 72.5cm, 두께 10.5cm)이 뚫려있어 이미 몸통에 있는 복장물은 분실되고 없었으며, 다만 몸통 바닥에 전적류의 찌꺼기만 이물질 등과 남아 있었다. 이 복장구멍을 통하여 내부의 결구수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희미하게 팔 부분에 책들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西方廣目天王의 경우 몸통에서 팔로 이어지는 부분은 터져 있어 이곳에 있었던 복장물 역시 이미 도난 당하고 없었다. 나머지 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팔굽 위와 아래에 복장물을 넣고 막은 직사각형의 복장구멍이 있었고, 다리에도 무릎 위와 아래, 그리고 발바닥에 복장물을 넣고 막은 직사각형의 복장구멍이 있었다. 이들 직사각형 복장막을 판을 들어내고 보니 전적류의 복장물이 빈틈없이 꽉 차 있었는데, 4구의 사천왕상에서 모두 48종(판본의 종수는 125종) 203책이 발견되었다.⁸⁾⁹⁾ 3차 발견은 국내에 현존하는 목조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되어 1997년 6월 12일 보물 제1254호로 지정된 사천왕상을 2001년 5월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릎아래에 복장되었던 전적 29종 145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¹⁰⁾

7) 崔仁善, 『迦智山 寶林寺』, 順天大學校博物館·迦智山 寶林寺, 1995. p.43.

8) 宋日基,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第6號, 1997.6. pp.95~100; 崔仁善, 『迦智山 寶林寺』, 順天大學校博物館·迦智山 寶林寺, 1995. pp.42~43.

9) 자세한 불서목록은 宋日基 교수가 작성한 『天王門 木造 四天王像 腹藏의 佛書目錄』을 참고하기 바람 (崔仁善, 『迦智山 寶林寺』, 順天大學校博物館·迦智山 寶林寺, 1995. pp.253~285.

그러면 이들 불서들을 언제 사천왕상에 복장하였는가?. 사천왕상이 조성되었던 중종 10년(1515)에 이들 불서들을 복장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천왕상을 중수한 현종 9년(1668) 또는 正祖 1년(1777)에 이들 불서들을 복장하였는가?. 복장시기에 관련된 이러한 의문은 造像記가 발견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몸통 속에서 발견된 복장물이 유실되고 없는 상태에서 복장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복장불서의 간행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장불서의 간행시기를 분석함으로써 대강의 복장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장불서의 간행시기를 분석해 본 결과, 1995년 2차로 발견된 복장불서 가운데 최고본은 建文 元年(正宗 1년: 1399)에 지리산 德奇寺에서 개판된 『高峰和尚禪要』이며, 가장 늦게 간행된 판본은 청나라 乾隆 29년(1764) 충청도 덕산 가야산 伽倻寺에서 개간된 『妙法蓮華經』 언해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01년 무릎아래에서 3차로 발견된 복장불서 가운데 최고본은 刊記面이 결락되어 있지만 1431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金剛般若波羅密經』이고, 가장 늦게 간행된 판본은 康熙 19년 庚申(1680) 妙香山 普賢寺에서 개간한 『誠初心學入文』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2차와 3차에 걸쳐 발견된 복장불서 가운데 최후본은 1764년 가야산 伽倻寺에서 개간된 『妙法蓮華經』으로 밝혀졌으며, 이 시기는 <寶林寺天王金剛重新功德記>에 수록된 사천왕상의 2차 중수가 있었던 정조 1년(1777)과는 13년의 시차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복장불서는 사천왕상의 2차 중수가 있었던 정조 1년(1777)에 복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¹⁾

한편 1995년 2차로 발견된 48종 203책의 복장불서는 현재 국가 유형문화재 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모두 지정되었는데, 世祖 5년(1459) 正音廳에서 간행한 『月印釋譜』(권25)와 世祖 8년(1462)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9-10은 1997년 6월 각각 보물 745-9호와 보물 1252호로 지정되었고, 成宗 13년(1482) 內需司에서 간행한 『金剛經三家解』 卷1은 2002년 8월 보물 772-3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밖의 불서는 12건으로 나누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94호~제205호로 지정되어 현재 ○○○의 紙類文化保存研究所에서 모두 보존처리 중에 있다. 특히 1997년 6월 보물 745-9호로 지정된 『月印釋譜』(권25)는 世祖가 先考와 先妣, 그리고 王世子로 책봉되었다가 죽은 桃源君의 仙薦薦度を 위해 1459년 경에 편찬 간행한 책으로, 종래에는 24권의 완성본으로 학계에 알려진 것이 통설이었다.

10) 송일기·김희태.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불서 조사보고. 지방문화재 지정조사 보고서(2), 전라남도, 2003.7.8. pp.3~39.

11) 宋日基.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第6號, 1997.6. p.96.

그러나 사천왕상에서 『月印釋譜』(권25)가 발견됨으로서 이러한 통설이 일거에 바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문학, 불교학 등 관련분야는 물론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이 책은 卷1, 2, 7, 8, 9, 10, 11, 13, 14, 15, 17, 18, 23에 이어 14번째로 발견된 초간본으로 16세기에 사찰에서 다시 번각하여 유통시킨 번각본조차도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月印釋譜』(권25)를 중심으로 서지학의 관점에서 보존처리 전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보존처리과정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3. 『月印釋譜』(卷 25)의 保存處理 過程

紙類文化財의 전통적인 수리는 종이(紙)·풀(糊)·물(水) 3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재료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존처리 전 대상물의 재질·상태·손상 등의 정확한 조사를 통한 상태분석과 수리방침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 다음 그에 따른 실제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보존처리 전 월인석보의 상태, 수리방침, 실제 보존처리 과정 등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保存處理 以前 狀態

월인석보 권25는 세조5년(1459) 초간본으로 발견 당시 앞과 뒤의 겉표지가 없고, 裝幀이 해체된 채 內綴만 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월인석보 권25의 형태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月印釋譜(卷25)/. - 木板本. - 世祖5年(1459), 1冊, 32.3×22cm.

四周雙邊, 半郭: 22.3×17.0cm, 有界, 半葉 7行16字(小字 14行16字), 註雙行, 黑口, 魚尾: 上下內向黑魚尾.

그러나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 본 연구소에 입고되었을 때의 월인석보는 내철한 종이심이 제거된 상태이며, 각 張의 일실을 우려하여 韓紙로 만든 종이실로 假綴된 형태였다.(<그림 1~2> 참조)



<그림 1> 보수 전 앞면



<그림 2> 보수 전 뒷면

그러므로 조사과정은 가철된 책을 해체하기 전 먼저 책의 외형을 사진 촬영한 후 책의 크기(가로×세로), 두께 등을 정밀 측정하였다. 이어 종이실로 묶인 가철본을 해체한 다음 서로 張次(페이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주변란 밖의 내철 부분 양면에 연필로 각각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¹²⁾, 판심을 중심으로 양면이 모두 나오도록 한 장씩 펼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과정을 통해 나온 부산물은 보존처리 과정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후일 다른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수리가 완료되어 원 소유자 또는 원 소유기관에게 반환될 때 보존 처리된 문화재와 함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을 통해 月印釋譜(권25)는 앞부분 제1~2장과 뒷부분 제145장 이후가 결락된 총 142장(3~144장)이 발견되었고, 책의 크기는 가로 22cm, 세로 32.3cm, 두께 2.8cm, 책의 장정은 구멍을 다섯 개 뚫어 철한 五針眼訂法の 線裝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장은 위의 <그림 3>과 같이 책의 윗부분과 첫 번째 針眼 그리고 책의 바닥 부분과 다섯번째 針眼은 2cm, 각 針眼 간의 간격은 7.1cm, 書背와 針眼의 간격은 1.6cm로 針眼과 針眼 사이는 아주 정확히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裝幀을 하기 전 책의 몸통을 깨매기 위해 종이심으로 內綴한 4개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들의 간격은 4.5cm, 6.4cm,

12) 현재 연필로 필서한 것을 제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연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작업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9cm, 7.2cm, 5.2cm로 간격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書背와 내철 구멍간의 간격은 1.2cm로 針眼보다 바깥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 內綴 및 針眼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월인석보 권25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四天王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사천왕상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책의 일부분, 즉 판심을 중심으로 양쪽 면이 규칙적으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本紙에서는 백색의 異物質이 묻어 나오는 등 종이가 아주 약화된 상태였다. 또한 일부 張은 부식과 손상이 심한 상태로,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적의 앞 부분인 1~2장과 뒷 부분인 제145장 이후는 표지와 함께 낙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3장부터 9장까지와 뒷부분에 해당하는 118장부터 144장까지 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아주 심한 상태며, 중앙부분에 해당하는 10장부터 117장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앞부분 해당하는 3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3장은 版心を 중심으로 약 1~3cm 정도 부식 손상되어 완전히 2면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판심의 상단부가 역삼각

형태로 손상되고, 판심 중앙부분부터 하단부까지 약 1~2cm 정도의 손상을 보이고 있으나 9장에 이르면 匡郭 안의 글씨는 비교적 손상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그림 4~5> 참조)



<그림 4> 3장의 상태



<그림 5> 9장의 상태

중앙부분에 해당하는 10장부터 117장까지는 판심을 중심으로 양면이 얼룩져 있는 상태를 제외하고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蟲害에 의한 부분적인 손상이 보이는데, 57·63·65장의 판심 하단 부분과 85~92장의 판심 상단 부분이 반원 형태로 손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안쪽에 속하는 중앙부분은 얼룩져 있는 상태를 제외하고 광곽의 안면과 바깥부분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6~7> 참조)



<그림 6> 57장의 상태



<그림 7> 85장의 상태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해당하는 118장부터 144장까지를 보면, 117장부터 張次(페이지)를 수록한 판심 부분이 조금씩 손상을 보이기 시작하다 점점 커져 141장에 이르면 판심부분이 4.5cm 크기의 마름모꼴 형태로 손상되어 박락되어 있다. 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42장과 143장, 144장은 다른 장에 비해 손상이 아주 심한 상태인데, 먼저 142장과 143장을 보면, 左邊과 右邊의 안쪽으로 지름이 약 8cm 정도의 원형 형태로 박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심의 중앙부에서 書眉와 書根 방향으로 역삼각 형태로 크게 박락되어 있어 손상 정도가 아주 심한 편으로 이들 손상은 빗물에 의한 부식이 아니라 蟲害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144장은 右側 半葉 4/5 정도만 남아있고, 또한 142장과 143장과 같이 우측에 8cm 정도의 원형 상태로 박락되어 있다.(〈그림 8~11〉 참조)



<그림 8> 141장 상태



<그림 9> 142장 상태



<그림 10> 143장 상태



<그림 11> 144장 상태

한편 인위적인 힘에 의해 내철 부위가 손상된 장도 발견되었다. 내철 부위가 손상된 장은 19장, 94장, 127장 등 3장으로, 이들 손상 부위는 모두 아래 <그림 12~13>과 같이 내철 구멍에서 바깥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월인석보 권25가 사천왕상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장정은 해체되었지만 내철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손상 부위는 발굴 이후 내철된 상태를 인위적으로 뜯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손상부위는 외형적인 손상은 물론이거니와 뜯어내기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하였을 때 종이의 섬유소가 늘어나 본문의 내용은 물론 원형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굴과정 및 발굴 이후 조사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12> 19장의 상태



<그림 13> 94장의 상태

이상 월인석보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세조 5년(1459)에 간행된 초간본이지만 인쇄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2장과 145장 이후가 낙장되어 있고, 사천왕상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책 전체적으로 판심을 중심으로 양면이 얼룩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앞부분인 3장부터 9장까지, 뒷부분인 118장부터 144장까지는 오염물에 의한 부식이 아주 심한 상태며, 중앙부분에 해당하는 10장부터 117장까지 일부 장은 부분적인 손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부분에 있는 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19장, 94장, 127장 등 3장은 인위적인 힘에 의해 내철 부위가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앞으로 발굴과정 및 발굴 이후 조사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이다.

3.2 修補方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과정을 통하여 월인석보는 일부 장이 낙장 또는 손상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빗물에 의한 얼룩이 발생하여 本紙에서는 백색의 異物質이 묻어 나오는 등 종이가 아주 약화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보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은 本紙의 현상 유지를 우선원칙으로 삼되, 반드시 후세에 재수리가 가능하도록 수리방침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부방침을 정하였다.

- 수리 재료는 종이(紙)·풀(糊)·물(水) 3요소만을 채택한다.

우리나라 紙類文化財의 전통적인 재료는 종이와 풀, 그리고 물 등을 이용한 3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의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서적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유 역시 종이, 풀, 물에 의한 재수리가 몇 차례라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용하기 간편한 화학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들 제품들은 후일 재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화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약화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리 재료로는 일체 채택하지 않았다.

- 補修紙는 가능한 한 本紙와 동일한 종이를 선택한다.

缺失 부위의 때움(補填)은 본지와 똑같은 조직, 똑같은 인장도를 가진 보수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본지와 서로 다른 조직과 인장도를 가진 보수지를 사용함으로써 결실부분의 보전부위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지와 똑같은 조직, 똑같은 인장도를 가진 보수지는 만들기가 불가능하므로 대대로 전통종이를 생산해 내고 있는 ○○○에 의뢰하여 가능한 한 본지와 동일한 보수지를 마련하였다.¹³⁾ 보수지는 책의 書口, 즉 版心을 보완하는데 사용되는 길이 35cm, 폭 7mm 정도의 版心 補修紙와 책의 사면을 보완하는데 사용되는 길이 60cm, 폭 2cm 정도의 四面 補完紙, 그리고 본지의 결손부위를 수리 또는 보완하는데 사용되는 本紙 補修紙 등 3종을 미리 준비하였다.

- 풀(糊)은 최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풀은 5년 이상 숙성시킨 풀을 사용하였다. 5년 이상 숙성시킨 풀은

13) 보수지를 선택할 때 당연히 원종이의 섬유 종류, 밀도 등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백질 등의 성분이 거의 제거된 순수한 전분으로 필요에 따라 꺼내 묽게 쑤어 사용한다. 그러나 5년 이상 숙성시킨 재료로 만든 풀도 좀(蠹)이 잠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 本紙의 缺失부위는 때움질(補填)을 원칙으로 한다.

뒷면을 배접하는 방식은 본지의 꺾임 등을 방지하는데 일면 장점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얇은 배접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본지가 두꺼워져 본지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축성이 떨어져 본지가 꺾일 경우 섬유소가 부러지기가 쉽다. 그리고 본지의 뒷면을 완전히 배접하기 때문에 풀을 필요 이상 많이 사용함으로써 좀(蠹)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缺失부위는 때움질(補填)을 원칙으로 하되 본지의 꺾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책시 안쪽에 얇은 닥지를 삽입하는 제책 방식을 취하였다.

- 세척(cleaning)은 보수 전과 보수 후 등 2회의 세척을 실시한다.

월인석보 권25는 앞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빗물에 의한 얼룩이 심할 뿐만 아니라 本紙에서는 백색의 異物質이 묻어 나오는 등 종이가 아주 악화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보수 전 부드러운 솔을 이용한 건식세척은 원형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증류수를 이용한 습식세척¹⁴⁾을 1회 실시하였고, 보수 후 본지에 묻은 풀과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세척을 실시하였다. 단, 본지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세척을 원칙으로 하였고, 먹의 농담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척수는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 책의 보존을 위해 書套와 冊匣을 제작한다.

수리를 마친 책은 보존을 위해 更紙로 만든 書衣에 바깥을 천으로 덮은 書套를 만들어 입히고, 오동나무로 冊匣을 만들어 책을 넣어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들 과정은 모두 후일의 연구를 위해 모두 기록으로 남겨둔다.

조사과정 및 보존처리 과정 중에 생성된 사진 또는 관련 기록물은 보존처리 과정시 유용

14) 증류수는 과도한 세척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月印釋譜』(권25)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보존처리 과정의 실증적인 내용을 기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한 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후일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수리가 완료되어 원 소유자 또는 원 소유기관에게 반환될 때 보존 처리된 문화재와 함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를 수리할 때, 장점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점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점을 어떻게 보충해갈 것 인가하는 여러 가지 방침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수리방침에 따른 월인석보 권25의 단계별 보존처리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3.3 保存處理 過程

월인석보 권25의 보존처리 과정은 1) 제1차 세척과정, 2) 판본 보완 및 보수 과정, 3) 제2차 세척 및 보존처리 과정, 4) 재단 및 제책과정, 서투 및 표갑의 제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계별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4단계에 해당하는 재단 및 제책과정, 서투 및 표갑의 제작 등은 전적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작업과정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3.3.1 제1차 세척과정

월인석보 권25는 판심을 중심으로 빗물에 의한 얼룩이 저 있고, 백색의 異物質이 묻어나오는 등 종이가 아주 약화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솔을 이용한 건식세척은 불가능하므로 수리 전 증류수를 이용한 1차 세척을 실시하였다. 세척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4~15> 참조)



<그림 14> 1차 세척과정



<그림 15> 1차 세척과정

1차 세척은 2회 실시하는데, 1회는 넓고 부드러운 붓에 증류수를 듬뿍 묻혀 위로부터 가볍게 흘러내려 얼룩이나 오염물을 불리는 과정이며, 2회는 세척수에 불린 얼룩이나 오염물이 흘러내리도록 위로부터 가볍게 흘러내리는 과정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지가 아주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물 위에 세척수가 떨어짐으로서 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척물에서 세척수가 어느 정도 빠지면, 세척물을 놓은 바닥의 한지와 함께 작업대로 조심스럽게 옮긴 후 그 위에 다시 깨끗한 한지를 덮어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가볍게 문질러 세척수를 흡수시키고, 이어 건조판에 붙여 말린다.

이상과 같이 1차 세척의 목적은 건조한 상태의 본지를 안정화시키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백색의 이물질들을 제거함으로써 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등 보수처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척을 통해 얼룩과 오염물 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리한 세척으로 인해 本紙의 古色 또는 墨의 濃淡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수리 과정 가운데 세척과정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3.3.2 판본 보수 과정

보수과정은 본지의 결실부위나 손상부분을 미리 준비한 補修紙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완 및 보수하는 과정으로, 육안은 물론 손끝의 감각으로도 종이의 안(內)과 밖(外), 종이의 결, 두께 등을 판단해 낼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 과정은 크게 본지의 구부러진 부위를 펴는 과정, 보수지를 이용한 보완 및 보수 과정 등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본지의 구부러진 부위를 펴는 과정은 本紙의 원형이 조금이라도 구부러져 변형이 있는 부분을 대나무 송곳 또는 대나무 칼을 이용하여 곧게 펴는 과정이다. 월인석보 권25는 발견 당시 내철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책의 書口 부분 즉, 절첩되는 판심부분 및 상하단 부위가 부식과 손상이 심해 구부러진 곳이 많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원형이 변형된 부분과 구부러진 섬유소 한올 한올을 얼마만큼 곧게 펴는가에 따라 앞으로 수행되는 보수과정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대나무를 이용한 본지의 구부러진 곳을 곧게 펴는 작업이 완료되면, 스프레이로 물을 약간 뿌린 다음 그 위에 깨끗한 한지를 덮고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문질러 곧게 펴는데, 월인석보 권25는 밖으로 노출된 판심부위가 매우 건조한 상태로 솔에 무리한 힘을 가해 본지가 찢어지거나, 종이의 섬유소가 늘어날 수 있었으므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였다.

다음 단계는 보수지를 이용한 실제 수리과정으로, 판심을 고정시키는 과정, 사면의 보완 과정, 결실부위의 보전과정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판심을 고정시키는 과정은 판의 중심을 잘 맞추어 이미 준비한 版心 補修紙를 이용하여 접착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중심이 맞지 않을 경우 재단과정 뿐만 아니라 장정을 하기 위해 판심을 접었을 때 匡郭(版匡 또는 邊欄)이 비뚤어지기 때문에 아주 정밀을 요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판심이 붙어 있을 경우 版心 補修紙 크기로 본지 판심부위에 풀을 칠한 후 판심 보수지를 붙이고 깨끗한 한지로 덮어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1차 접착 시킨다. 이어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두드려 빈틈없이 2차 접착시킨 다음 접착면의 섬유소가 비뚤어져 있으면 곁에 따라 맞추고, 글씨 등의 파편이 비뚤어졌을 경우 반드시 맞추는 작업을 하여 완성 시킨다.<그림 16~17> 참조)



<그림 16> 판심 고정과정



<그림 17> 판심 고정 후

그러나 월인석보 권25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3~9장과 뒷부분의 140~143장은 판심 부위가 많이 손상되어 접힌 부분이 완전히 2면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특히 3장은 판심 부분이 완전 부식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3장은 먼저 비교적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64장을 바탕으로 전체 면의 크기를 결정한 다음 匡郭의 水平線을 맞추어 本紙 補修紙를 이용한 고정작업을 하였다. 판심 보수지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판심 부위가 1~3cm 정도 손상되어 결락되어 있기 때문에 판심부위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폭이 약 5mm 정도의 판심 보수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 방법은 먼저 본지의 접착 부분에 폭이 약 2~3mm 이하 정도로 접착풀을 칠한 후 補修紙 붙인 다음 접착부위를 종이 곁을 따라

뜯어 낸 후 깨끗한 한지로 덮어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1차 접착 시키고, 이어 부드러운 솔로 두드려 빈틈이 없이 2차 접착시킨다. 판심이 고정된 본지를 글씨가 앞면으로 나오도록 다시 뒤집은 다음 접착면의 섬유소나 글씨 등의 파편이 비뚤어졌을 경우 반드시 맞추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림 18~21> 참조)



<그림 18> 판심 맞추기 전



<그림 19> 판심 맞춘 후



<그림 20> 판심 고정 작업



<그림 21> 판심 고정 후

판심의 고정작업이 끝나면 本紙의 上下左右를 四面 補完紙를 이용하여 덧대는 보완작업을 한다. 장정형태가 대부분 線裝 形態인 고전적은 사면이 밖으로 노출되어 弱化되기 쉬운데, 월인석보 권25역시 書口(책의 版心부근)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손상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四面 補完紙를 보완작업이 꼭 필요하였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원형의 크기가 약간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으나 재단 작업시 本紙를 훼손하지 않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상하, 좌

우 사면의 보완은 최소한으로 크기로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본지의 사면을 약 2mm 정도의 폭으로 풀을 칠한 후 四面 補完紙의 섬유소를 본지의 접착면에 붙이는데, 상·하면은 본지의 종이결과 같은 방향으로, 좌·우면은 본지의 종이결과 엇갈리게 붙인 후 잘 접착시킨다. 이러한 이유는 자연환경에 따라 본지의 수축 또는 이완이 발생하더라도 사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그림 22~25> 참조)



<그림 22> 보수전 전면



<그림 23> 보수전 후면



<그림 24> 보수후 후면



<그림 25> 보수후 전면

사면 보완작업이 끝나면 마지막 과정으로 부식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위의 보수과정이 이루어진다. 월인석보 권25는 전체적으로 볼 때, 書口의 상단부는 역삼각형태로 하단부는 삼각형의 형태로 손상되어 있다. 특히 57, 63, 65장은 판심 하단 부분이 반원 형태로, 85~92장은 판심 상단 부분이 역삼각 형태로 손상을 보이고 있으며, 117장부터 張次(페이지)를 수

록한 판심 부분이 조금씩 손상을 보이기 시작하다 점점 커져 141장에 이르면 판심부분이 4.5cm 크기의 마름모꼴 형태로 손상되어 박락되어 있다. 또 이 책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142장과 143장은 左邊과 右邊의 안쪽에 지름이 약 8cm 정도의 원형 형태로 박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심의 중앙부에서 書眉와 書根 방향으로 역삼각 형태로 크게 손상되어 있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44장은 142장과 143장과 같이 우측에 8cm 정도의 원형 상태로 박락된채 右側 半葉 4/5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들 손상부위를 本紙 補修紙를 이용한 보수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보수방법은 위의 판심 보완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3.3.3. 제2차 세척 및 제책과정

제2차 세척은 보수과정에서 사용된 풀 등의 이물질과 빗물에 의한 얼룩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세척은 3회 실시하였다. 1회는 얼룩이나 오염물을 불리는 과정이고, 2회는 오염이 심한 부위에 직접 세척수를 투여하는 과정이며, 3회는 세척수에 불린 얼룩이나 오염물이 흘러내리도록 세척수를 위로부터 가볍게 흘러내리는 과정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염이 심한 부위에 직접 세척수를 투여하는 2번째 과정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세척물 위에는 세척수가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 세척물에서 세척수가 어느 정도 빠지면, 넓은 작업대 위로 옮긴 후 그 위에 깨끗한 한지를 덮어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가볍게 문질러 세척수를 흡수한다. 다시 거꾸러 뒤집어 처음 깔아 놓은 한지를 제거한 후 혹시 구부러진 곳이 있으면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판본을 곧게 편 다음, 그 위에 다시 깨끗한 한지를 덮고 가볍게 문질러 접착시킨 후 건조판에 붙여 말린다.<그림 26~29> 참조



<그림 26> 2차 세척과정



<그림 27> 판본 펴는 과정



<그림 28> 세척수 흡수 과정



<그림 29> 건조과정

이후 과정은 건조판에서 떼어낸 후 장정을 하기 위해 본지를 재단하는 과정과 본지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얇고 길긴 닥지를 삽입한 후 몸통을 꿰매는 內綴과 책의 장정과정, 그리고 완성된 책을 보호하기 위해 書套와 冊匣 제작 과정이 있으나, 이들 과정은 전적의 보존처리에서 일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재단 작업은 본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원래의 크기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본지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닥지는 최대한 얇아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총 142장으로 이루어진 월인석보 권25에 아무리 얇은 닥지를 이용하더라도 제책시 원래의 책 두께보다 두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월인석보 권25를 수리한 결과, 수리 전 책의 외형은 가로 22cm, 세로 32.3cm, 두께 2.8cm이었으나, 수리 후 가로 22.5cm, 세로 32.7cm, 책의 두께는 3.2cm로 가로 0.5cm, 세로 0.4cm, 두께 0.4cm 등의 외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편 몸통을 꿰매는 내철 작업은 원래의 위치에 똑같이 4개의 구멍을 뚫어 종이심으로 내철하였고, 線裝 역시 槐子汁으로 黃染한 표지를 마련하여 책의 몸통에 대고 원래의 위치에 5개의 구멍을 뚫어 붉은 비단실로 綴하는 黃紙紅絲에 의한 五針眼訂法을 택하였다.(아래 <그림 30~33> 참조)



<그림 30> 본지의 재단과정



<그림 31> 닥지 삽입과정



<그림 32> 내철과정



<그림 33> 제책과정

4. 結論 및 提言

이상과 같이 장흥 보림사의 연혁과 사천왕상의 조성시기, 그리고 1955년 장흥 보림사의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복장불서 및 보물 제745-9호로 지정된 『月印釋譜』(권25)를 대상으로 서지학의 관점에서 지류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흥 보림사는 신라 경덕왕 18년(759)에 元表대사에 의해 처음에는 화엄종찰로 개창하였으나 體澄이 현안왕 2년(858)에 가지산사로 이석함으로서 선종사찰의 중심 도량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말 이후 보림사는 寺運이 쇠락되어 폐사의 처지가 되었다가 려말에 이르러 새로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대규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단히 번창하였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림사의 사천왕상은 호법·호국·호악의 존재로서 中宗 10년(1515)에 조성되었고, 이후 현종 9년(1668)과 正祖 1년(1777) 2차에 걸쳐 중수되었으며, 1954년, 1971년, 1995년, 2001년 4차에 걸쳐 보수공사 및 조사가 실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불서는 언제 복장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 복장불서의 간행시기를 분석해 본 결과, 사천왕상의 2차 중수가 있었던 정조 1년(1777)에 복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천왕상의 복장불서는 1971, 1995, 2001년 등 모두 3차에 걸쳐 발견, 조사되었는 바, 1차 때 몸통에서 발견된 불서는 체계적인 정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차 때는 팔과 다리 부분에서 48종(판본의 종수는 125종) 203책이 발견되었고, 3차 때는 무릎아래에서 29종 145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月印釋譜』(권25)의 보존 처리 전 형태적 특징은 앞부분 제1~2장과 뒷부분 제145장 이후가 결락된 총 142장(3~144장)이 발견되었고, 책의 크기는 가로 22cm, 세로 32.3cm, 두께 2.8cm, 책의 장정은 구멍을 다섯 개 뚫어 철한 五針眼訂法の 線裝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장정을 위해 뚫어놓은 針眼의 간격은 7.1cm, 書背와 針眼의 간격은 1.6cm이고, 책의 內綴 간격은 4.5cm, 6.4cm, 9cm, 7.2cm, 5.2cm, 書背와 내철 구멍간의 간격은 1.2cm로 針眼과 針眼 사이는 아주 정확히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철을 위해 뚫은 구멍은 針眼 보다 바깥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월인석보 권25의 상태는 사천왕상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책의 일부분이 규칙적으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本紙에서는 백색의 異物質이 묻어 나오는 등 종이가 아주 약화된 상태이며, 앞부분과 뒷부분의 장은 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심한 상태며, 중앙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19장, 94장, 127장 등 3장은 인위적인 힘에 의해 내철 부위가 손상된 장도 발견되었는데, 앞으로 발굴과정 및 발굴 이후 조사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이다.

『月印釋譜』(권25)의 보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수리방침의 주안점은 本紙의 현상 유지를 우선원칙으로 삼되, 반드시 후세에 재수리가 가능하도록 수리방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방침을 정하였다. 『月印釋譜』(권25)의 보존처리 과정은 1) 제1차 세척과정, 2) 판본 보완 및 보수 과정, 3) 제2차 세척 및 보존처리 과정, 4) 재단 및 제책과정, 서투 및 표갑의 제작 등으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月印釋譜』(권25)의 수리 결과, 張의 매수는 보존처리 전에는 142장이었으나 보존처리

후에는 총 151장(표지 2장- 앞, 뒤 각1장, 보호지 7장 -앞 5장, 뒤 2장, 본지 142장)으로 표지를 포함하여 9장의 매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리 전 책의 외형은 가로 22cm, 세로 32.3cm, 두께 2.8cm이었으나, 수리 후 가로 22.5cm, 세로 32.7cm, 두께 3.2cm로 가로 0.5cm, 세로 0.4cm, 두께 0.4cm 등의 외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흥 보림사에서 발견된 복장불서의 보존처리 과정에 참여한 서지학 전공자로서 향후 지류문화재의 보존처리 분야는 매우 유의해야할 부분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 상당량이 지류문화재임을 인식할 때, 지류문화재의 보존 처리는 수년동안 고도의 경험적 기술을 축적한 보존처리 전문가, 우리 고유의 전통종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숙련된 종이 전문제작자, 그리고 책에 대해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서지학자 및 관련 연구자 등의 협력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협동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들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력 작업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태·최인선·양기수 역주; 고경 감수. 2001. 역주 보림사 중창기. 장흥문화원.
- 朴智善. 1992. “東洋繪畫·書籍의 保存修理에 關하여”, 美術史學研究 通卷 194·195(1992.9), 31~54.
- 사와다 마사아키(澤田正昭) 著; 金聖範·鄭光龍 共譯. 2000. 문화재보존과학개설. 서울: 서경문화사.
- 宋日基. 1997.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第6號(1997.6), 89~92.
- 송일기·김희태. 2003.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불서 조사보고”, 지방문화재 지정조사 보고서(2), 전라남도(2003.7), 3~39.
- 崔仁善. 1995. 迦智山 寶林寺. 順天大學校博物館·迦智山 寶林寺.
- 최인선·김희태·양기수. 2002. 보림사. 학연문화사.